

# 제3회 섯밭들산골마을영화제 개최

장수군, 8월 1~4일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 주제로 세계 마을영화 총 8개국 17편 상영

‘제3회 섯밭들산골마을영화제’(집행위원장 하영택)가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의 영화여행을 시작한다.

영화제 개막식은 장수군 천천면 신전마을(섯밭들) 언덕에 위치한 200평 규모의 폐업한 소막(소幕)을 문화공간으로 꾸민 라운지 소(Rounge So)에서 개최되며 천천면 농악대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선언, 영화제 트레일러 상영에 이어 초청감독 및 개막작 상영으로 마무리된다.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는 주제로 매년 8월에 열리는 섯밭들산골마을영화제는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시각의 영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세계와 공유하는 국제마을영화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개막작은 충북 괴산으로 귀촌한 오정훈 감독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토종 씨앗(우리씨앗)을 채종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70대 늙은 농부와 30~40대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티나무 아래(Under Zelkoba)’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3편의 해외작품 중 러시아의 농촌 작은 마을에 사는 노인이 느끼는 고향에 대한 깊은 애착과 마을을 떠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담고 있는 홈(Niguez Home)을 연출한 러시아 파르자나(Parzana) 감독과, 시각 장애인이 음악의 도움으로 현실을 비꾸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잘 나타낸 조지아 출신의 ‘게디(GEDY)’를 연출한 아니 잔티(ANI JGENTI) 감독이 섯밭들을 직접 방문한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진이 절실한

시점에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고 장수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점이 이 영화제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민들이 직접 영화제를 준비했다는 점, 특히 귀촌한 두 청년의 참여는 영상문화가 살아 있는 장수군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라운지 소(Rounge So)’와 정여립 선생의 대동정신을 기억하고자 만든 ‘공간여립(Space Yeolip)’ 상영관에서 마을과 평등을 주제로 하는 총 8개국 17편의 영화가 10회차로 상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은 홈페이지 방문(<https://smvf.imweb.me>) 또는 사무국(010-3052-7766)을 이용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손으로 공예로’ 소식지 증면 발행

한국전통문화전당, 연간 2회 40면 지역 공예문화 정보 담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역 공예문화 정보를 담은 소식지 ‘손으로 공예로’ 15호를 새로운 모습으로 증면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손으로 공예로’는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로 전통 공예의 다양한 작품들과 작가들을 소개하고, 공예의 역사와 현대적 변화를 다루기 위해 연간 4회 발행해 왔다.

올해는 발행 횟수를 2회로 줄이는 대신 40면으로 증면 발행하고, 내용을 충실화했다. 더불어 e-book과 웹진 등 온라인 분야를 더욱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5호부터 시각장애인들도 ‘손으로 공예로’를 음성변환 앱(App)을 통해 청취가 가능한 수 있도록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15호는 공예인과 비공예인 모두를 타겟으로 이른바 ‘반반 구성 편집’을 진행.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1면부터 20면까지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하고, 다시 뒤집어 1면부터 20면까지

또 다른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한 방식이다. 김도영 원장은 “손으로 공예로는 시대 트렌드를 반영해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온라인 영역 확대하는 등 콘텐츠 질적 향상을 위한 소식지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다”며 “꾸준한 발간을 통해 전통 공예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으로 공예로’ 소식지는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집을 통해 무료 구독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발행된 소식지는 e-book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 ‘한뿔’

전북여성가족재단, 부산 지역 관광·체험 분야 5곳과 협약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25일 부산시청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 161개사 임직원 및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에만 국한되던 가족친화인증기업 할인 혜택이 부산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관은 △(주)엘시타머니지먼트, △클럽더오아시스(보양온천 및 워터파크), △제일항공여행사(요트), △세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 △키자니아 부산(어린이 직업체험) 등 총 5곳이다.

특히 (주)엘시타머니지먼트는 전북 외의 유일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5일 부산시청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 숙박 인센티브 기관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임직원 한정 숙박료를 40% 할인한다. 관광분야에서는 대상 범위를 임직원을 비롯한 동반 3인까지로 확대했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에만 국한

되던 인센티브 제공이 부산 지역으로 확대됐다”며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은 24일,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일원홀에서 병원측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립민속국악원-원광대병원, 업무협약 체결

의료·한국문화 분야 상호교류 협력기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4일,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일원홀에서 병원(병원장 서일영)측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문화 축제 및 공연 등 관련 정보 공유 △민속국악원 직원 대상 응급·심뇌혈관질환·정신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 공동 진행 △민속국악원 직원과 가족의 원광대학교

병원·장재문화원 이용 혜택 부여 등 다양한 교류·협력하게 되었다.

김중현 원장은 “몸·정신 건강 증진을 통해 국악원 지·단원들의 업무 능력과 국악 공연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원광대병원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연으로 전통문화 보급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문화재단, 창작예술학교 참여 예술인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2024 교육하는 예술가 양성과정 ‘창작예술학교’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작예술학교는 교육하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예술인 재교육 통합교육과정을 말한다.

이는 커리큘럼에 집중된 교육보다, 실제 예술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현장을 기획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으로 설계됐다.

올해 8기 예술인을 모집하는 창작예술학교는

특강, 워크숍, 자문, 그리고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정규과정과 미디어 특화과정으로 나뉜다. 정규과정은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총 7회차에 걸쳐 이뤄진다. 9월 마지막 주 주말에 전주예술놀이 축제와 연계해 최종 시연할 예정이다.

참여 전문가로는 영·유아극 ‘폭 하고 들어 갔다가 푸 하고 솟아오르’의 연출가인 양혜정 연출놀이 전문가와, 한국미협회의 회장이자 극단 빨간신발스튜디오의 대표인 이정훈

마임리스트,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의 저자이자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총괄 디자인한 편해문 작가, 강원도 평창의 폐교를 재생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감자꽃 스튜디오의 이선철 대표, 예술가의 핵심 감정과 자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브랜딩 소스를 만드는 과정으로 황교진 비즈멘탈 대표 등이다.

신청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업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9~31일까지며, 8월 2일 신청자 전원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통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